

# LG하우시스, 전자재 디자인상 수상

독일 레드닷, 인조대리석·바닥재 6개 ... 인지도 향상 해외시장 개척 기여

LG하우시스는 창호재와 인조대리석 바닥재 6개 제품이 독일 레드닷 디자인상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작은 수납공간을 병행할 수 있는 모듈러창, 창호 프레임을 숨긴 히든 프레임창, 창호 프레임이 얇아 보이도록 설계한 클리어뷰창, 이음매 없이 하얀 캔버스의 느낌을 살린 일체형 캔버스 하이막스 주방가구, 빛의 투과성을 활용한 머그 세면대 하이막스, 이태리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멘디니와 협력해 2009년에 출시한 멘디니 바닥재 등이다.

특히, 일체형 캔버스 하이막스 주방가구는 2010년 2월 iF 디자인상에 이어 또다시 수상했다.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레드닷 디자인상은 독일의 iF 디자인상, 미국의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꼽힌다.

LG하우시스는 2월 iF 디자인상에서도 4개의 수상작을 냈다.

LG하우시스 디자인센터장 박성희 상무는 “고객 감성에 다가갈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에 핵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게 됐다”며 “제품의 글로벌 인지도가 향상돼 해외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30>